

양계 산업 위기 수습대책위원회 발족

양계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칭 양계산업 위기 수습대책위원회(강금노, 윤경중, 민덕기, 이계조, 박도현, 한한수 씨등)를 소집, 지난 73년 12월 29일 (토)에는 많은 부화업자들이 단합하여 생산을 조절할 수 있어야함을 다같이 느끼고 그 결속을 위한 양계산업 위기 수습대책위원회란 이름으로 정식 발족을 했는데 회장에는 신촌부화장대표 강금노씨 부회장에는 이문양계 부화장 대표 이창렬와 칠성부화장 대표 김삼씨가 선출 되었다.

이날 토의된 내용은 일정기간 입란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는데, 전국 각 부화업자와 협력하여 이러한 결의에 찬동을 받기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 했다.

삼가 세모에 새해에 고당의 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12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성회관에서 전국부화업자 참석리에 양계 산업 위기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업계의 단합된 힘으로 시련을 극복키로 의견을 모아 우선 74년 1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일체 입란을 중지키로 결정하였기 통보하니 별첨 동의서에서 명달인하여 우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동

의서를 보내주시지 않는분은 본 결정에 찬동치 않는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결의 사항

1. 전체 부화업자는 별첨 동의서의 취지를 인식하고 74년 1월 5일부터 74년 2월 10일까지 일체 부화기에 입란을 중지한다.
2. 본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품종별 각도별로 지도 계몽반을 편성하며 동의서를 받는다.
3. 동의서를 제출치 않는 업자 및 제출하고도 위반하는 업자명단을 양계잡지에 공개한다
4. 각부화장은 주위의 미등록부화장 명단을 대한양계협회에 보고하고 등록부화장 중 양계협회 비회원에게는 강력히 입회를 권유한다.
5. 1월 26일경 및 2월 10일경 지도계몽반이 전국을 순회 지도한다.
6. 2월 5일 본 생산조절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한다.
7. 모든 업무연락은 대한양계협회로 한다.

1973. 12. 29.

서울특별시 중구 양동 44-28 양계산업. 위기 수습대책위원장

강 금 노

동 의 서

본인은 초생추의 생산조절이 계란 닭고기의 과잉생산을 방지하여 국내외적으로 부족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비이하로 하락한 계란 및 닭고기값을 정상화하여 채란 및 육계업자를 보호하며 부화업자가 건전하게 발전하여 정부의 축산진흥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길임을 깊이 깨닫고 우선 1974년 12월 10일부터 1974년 2월 10일까지 일체 부화기에 입란하지 않을것에 동의합니다.

1973. 12. 29.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양계산업 위기 수습대책위원장
귀하

